

# 저탄소 학교급식으로 기후위기 극복

### 전북교육청, '지구·생태·시민' 부제로 2025 생태전환 교육급식 설명회... 저탄소 환경급식 지원사업 등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구·생태·시민을 부제로 '2025 생태전환 교육급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올해 저탄소 환경급식 실천학교 132개교, 영양·식생활교육 중점학교 및 저탄소 환경급식 중점학교 15개교의 학교장과 영양교사,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에 관심있는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저탄소 환경급식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육류 위주 식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설명회는 △2022~2024년 저탄소환경급식 중점학교 운영사례집 배부 △20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구·생태·시민을 부제로 '2025 생태전환 교육급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년 저탄소환경급식 중점학교인 전주서림초와 남원고의 운영사례 발표 △미식능력 향상 특강 △2025년도 사업 안내

내와 소통의 시간 등으로 운영됐다.

특히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훼손 문제, 청소년 건강 약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저탄소 식생활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백리식단 운영', 학생 대상 '저탄소채식요리 경연대회' 등 특색사업을 추진해 학교 현장에서 저탄소 채식급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양민 문예체육건강과장은 "지나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소아비만, 면역계 질환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강한 식생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존중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개소 15주년을 맞아 치료를 마친 수리부엉이를 지난달 30일 익산시 미륵산 인근 자연으로 방생했다.

## '이제 맘껏 하늘 높이 날아 올라라'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수리부엉이 치료 후 방생 완주 소양서 발견, 치료 재할 거치고 자연 복귀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가 개소 15주년을 맞아 치료를 마친 수리부엉이를 지난달 30일 익산시 미륵산 인근 자연으로 방생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방생된 수리부엉이는 지난 4월 15일 완주군 소양면 신원산리길 19 인근에서 발견된 새끼 수리부엉이로, 이송됐다. 이후 센터에서 전문적인 수의학적 진료와 재활 과정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 충분한 비행 능력과 야생성을 확인한 뒤 자연 복귀가 결정됐다.

방생 행사는 센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 수리부엉이는 미륵산의 울창한 숲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한재익 센터장은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009년 4월 30일 개소한 이후 15년 동안 수많은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냈다"며 "앞으로도 생태계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광복 80 기억의 밥상' 으로 보훈 실천 | 우석대 호텔외식조리학과, 전북동부보훈지청과 행사

우석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는 지난달 30일 종합관 4층 레스토랑 실습실 '나르샤'에서 전북동부보훈지청과 함께 '광복 80 기억의 밥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즐겨 먹었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공함으로써,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에게 보훈 정신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메뉴는 광복의 의미를 담아 소고기 뭇국과 주먹밥, 김치찜, 꿩마로우, 잡채 등 주유리와 함께 삼색나물, 모듬전, 무생채 등 정갈한 반찬이 제공됐다. 후식으로는 꽃한과와 미숫가루라테가 곁들여졌다.

이날 호텔외식조리학과 재학생 12명은 교수진과 함께 조리과 서비스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며, 전공 실무 역량을 발휘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실천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는 지난달 30일 종합관 4층 레스토랑 실습실 '나르샤'에서 전북동부보훈지청과 함께 '광복 80 기억의 밥상' 행사를 개최했다.

## 베트남 남부 통일 기념... 유학생들과 문화적 공감대 넓힌다

### 전주기전대, 교류 행사 개최

전주기전대학 국제협력처 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남부 통일 기념일을 맞아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들과 뜻깊은 문화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주기전대학 학부과정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한자리에 모여 베트남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본국의 국경일에 대해 알리고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유학생들이 직접 베트남 국경일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유사 전통놀이인 공기놀이와 딱지치기를 함께 즐기며 양국의 문화에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드라마에서 유행한 달고나 게임을 베트남 국기 모양으로 제작해 보기도 했다.



전주기전대학 국제협력처 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남부 통일 기념일을 맞아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들과 뜻깊은 문화 교류 행사를 가졌다.

전주기전대학 유학생지원센터 이대용 센터장은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지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진정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형성된 서로에 대한 이해도는 지역에 대한 호감도로 성장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주에 영향을 긍정적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공 자율 선택제 현장 안착 발판 마련... 전주대, 'JJ Major Fair'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달 30일 전공 자율 선택제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전공탐색 행사인 'JJ Major Fa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유전공학부와 단과대학 통합모집에 따라 입학한 전공 자율 선택제 재학생의 전공선택권 보장 및 전공선택제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42개 학과와 5개 부서가 참여해 교육과정, 전공 역량, 진로 방향성 등을 안내했다.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메타버스 기반의 'e-Major Fair'도 동시에 진행됐



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전공 소개 콘텐츠가 제공됐고,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전공자율선택제 대상인 1학년 신입생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탐색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 체험 중심의 학과정보 및 진로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어 전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실제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들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부분 해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공 소개를 넘어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3일 2026학년도 사관학교 입시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 등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사관학교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4개 사관학교가 참여해 학교별 약 40분간 2025학년도 입시결과 및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에는 학교별 개별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관련 고시 연수 총 5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신규 및 저경력 교사(3년 이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8일 전주를 시작으로 △5월 27일 군산·익산 권역 △5월 30일 남원·장수·임실·순창 권역 △6월 12일 완주·김제·무주·진안 권역 △6월 20일 정읍·부안·고창 권역으로 나뉘어 총 5회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 지역 평생교육 혁신 선도한다

###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재직자 AID 30+ 집중캠프 운영기관 선정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2025년 재직자 AID 집중과정(AID 30+) 집중캠프'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 지역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혁신을 선도하게 됐다.

이 사업은 전북지역 재직자의 AI·디지털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직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전주대에 따르면 일반사무, 영업, 마케팅 등 세 가지 직무를 선정했다.

일반사무 직무에서는 △AI 기반 사무자동화 입문과 응용 △사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사업기획 프로젝트 실무 과정을 제공한다. 영업 직무에서는 △AI 기반 CRM 영업 자동화 실무 △CRM 인사이트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실전 기획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마케팅 직무는 △AI 기반 마케팅 프로세스 자동화 △마케팅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전략 △마케팅 브랜드 기획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모든 과정은 AI 기술 기반 실무 적용을 특징으로 하며,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데이터 처리, 자동화 툴 활용, 프로젝트 기반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교육과정은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산업 수요를 반영해 지역 현장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특히 참가자가 실제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갖췄다. 각 과정은 8차시로 집중 편성됐다.

수료자에게는 학습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디지털 배지가 부여된다. 3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금배지', 1~2개 과정 이수자는 '은배지'가 각각 발급된다.

미래융합대학 한동승 학장은 "그간 LIFE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AID 30+ 집중캠프 사업에 도전했다"며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재직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의 평생교육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 모델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평생학습지원센터(센터장 송해근)가 중심이 돼 운영되며, 지역 성인학습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장애학생 맞춤 지원... 사회통합 도모

### 전북대, 장애학생 진로·취업 선도대학 7년 연속 선정 "학생 중심 배리어프리 캠퍼스 조성에 힘쓰겠다" 강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돕기 위한 것으로 권역별 선도대학을 지정, 체계적인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북대에 따르면 2019년 처음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진로·취업 프로그램 11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전남과학대를 비롯한 호남권 17개 대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의 역할을 수

행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배리어프리 캠퍼스 조성에 힘쓰겠다"며 "특히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종휴 학생취업진로처장은 "전북대 행복드림센터에서도 장애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배리어프리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대학에서 편안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